

멕시코의 국명 및 지명연구*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비교 역사 및 언어학적 관점에서-

손성태
(배재대학교)

Son, Sung-Tae. (2013). Study of Meanings of Mexico and Some Toponyms of Mexico.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1(3), 385-406. In this paper, first, I studied the meaning of *Mexico* based on Mexicans' ancient documents and legends comparing them with our ancient ones. I found that *Mexi*, the stem of the word, was derived from the Korean ancient tribal name 맥이(狛耳), of which the more original form is 맥(狛). Second, I paid attention to the similarity between *Aztlán*, the name of the mythic original place of the Aztec, and 아사달(阿斯達), the mythic ancient capital of Kochosun, the first Korean kingdom according to Dangun mythology. By this I came to know that the meaning of 아사달(阿斯達) was 'white territory or white mountain,' and to find that the word 백악산(白岳山), another name written immediately before 아사달(阿斯達), was the interpretation in Chinese of this mythic toponym. I also studied the meaning of 태백(太伯), another mythic toponym that appeared in Dangun mythology, comparing with the word *Tepec* used by the Aztec in order to refer to mountains. By this comparison I cleared up that 태백(太伯) was a common noun and meant 'mountain.' Korean ancestors constructed many pyramids in Manchuria in ancient ages, but we Koreans of today did not know what they called them. I came to find that they called them *tepec* by this comparison. And, finally, I explained that *Cholula*, an ancient Mexican toponym, was correlated with Korean word 출행랑.

* 본 연구는 2011년 전주대학교 은누리홀에서 개최된 현대문법학회-대한언어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특강으로 발표한 내용과 추가로 몇 가지 지명 연구를 정리한 것임. 본 연구에서 멕시코 원주민 언어와 우리말을 비교할 때, 손성태(2011)의 「멕시코에 나타난 우리민족의 언어-나와들어 생활용어를 중심으로」, 『언어학』, 제 19호에 소개한 음소 대응과 발음을 기본 바탕으로 함.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발음표기도 역시 같은 논문에서 소개한 표기법을 기본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페인어식 발음표기는 생략하고, 우리말 식 발음 표기만을 사용한다. 스페인어식 발음은 필요한 경우에만 []안에 표기한다.

주제어(Key Words): Mexico, Mexi, Aztlán, 아사달(阿斯達), 백악산(白岳山), pyramid, Korean mytic toponym, tepec, 태백(太伯), Colula, 줄행랑

1. 서론

북미 대륙에서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9배에 달하는 국토에, 인구 1억2천만여명으로서, 우리나라 인구의 두 배가 넘는 큰 나라이다. 전체 인구의 20%만이 백인이고, 80%가 순수 원주민인 인디언이거나 인디언과 스페인계 백인의 혼혈이다. 2011년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무역거래에서 거두어들이는 무역흑자 규모가 64억불이나 된다. 이것을 미국과 캐나다를 합한 무역거래에서 우리나라가 기록한 흑자규모가 85억불이라는 사실과 비교해보면, 멕시코가 우리의 무역 상대국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일련의 연구(손성태 2008, 2009a, 2009b, 2010a, 2010b, 2011, 2012)를 통하여, 멕시코 원주민들이 우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왔다. 그 증거로는 언어 일치 외에도, 멕시코 원주민들의 의복과 장신구, 생활풍습, 육아풍습, 장례풍습, 종교, 고고학적 유물과 그들이 남긴 역사 기록 등 참으로 많다. 무엇보다 각종 풍습에서 그들이 사용한 ‘용어’가 우리말이고, 그 용어는 그 풍속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우리말이라는 점이 언어학적으로 눈에 띈다. 그들이 남긴 중요한 유물의 명칭도 우리말이고, 종족명칭도 우리말이며, 심지어는 국가의 조직 구조에서 최하층에서 최고 지배계층까지의 명칭도 우리말로 되어 있다. 그들이 남긴 고대 문헌—그들의 말을 차음(借音)하여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기록한 문헌—은 우리말로 해석해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해석이 나온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관점에서, 멕시코의 국명(國名)과 그들의 본향으로 알려진 아스땅(Aztlán)이 우리의 아사달(阿斯達)이며, 두 지명의 뜻도 같다는 것을 밝히고, 우리민족 고대사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태백(太伯)과 멕시코 지명의 태백(tepec)이 같은 말로서, 산(山)을 뜻하고, 멕시코의 지명 출틀라(cholula)도 우리말에서 유래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분야 연구의 초기 연구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순수한 언어학적 연구와는 그 성격이 다를 것이다. 본 연구는 멕시코 원주민어와 우리말, 좀 더 나아가서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와 우리말의 비교 연구가 앞으로 폭넓게 진행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

2. 본론

2.1. 멕시코의 국명: 맥이곳(México)

멕시코의 원래 국명은 México[멕이고/멕이고]이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멕시코’라는 명칭은 영어식 발음이고, 멕시코인들은 아무도 ‘멕시코’라고 하지 않는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멕시코의 아스텍제국을 정복한 스페인인들은 원주민들이 말하는 ‘맥이곳’을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México라고 기록하고, [멕이고/매히꼬]로 발음하기 시작했다. 음절 xi의 스페인어 원래 발음은 [시]이지만, 원주민의 말소리에 최대한 가깝게 발음한 것이다.

멕시코 국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1492년 신대륙의 발견과 1521년 아스텍제국의 정복 이후 300여 년 동안 멕시코는 ‘뉴에바 에스파냐(Nueva España/뉴 스페인)’로 불리면서, 스페인의 식민지로서, 스페인 왕실의 지배를 받아들이며 스페인에 많은 공물을 바쳐왔다. 그런데, 1803년부터 시작된 프랑스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은 스페인의 왕실의 권위와 식민지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이를 계기로 멕시코에 뿌리를 내린 스페인의 후예들을 중심으로 스페인 왕실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1810년 미겔 이달고(Miguel Hidalgo) 신부의 주도하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반란은 스페인 왕실의 직접적 지배를 종식시키고 마침내 1821년 멕시코 독립을 쟁취하는데 성공했다.

스페인 왕실과 전혀 관계없는 ‘독립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300여년이라는 시간동안 이미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혼혈인(원주민과 스페인인의 혼혈)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신대륙 발견 이전에 독립국가로서 존재했던 원주민 왕국의 명칭을 새롭게 국명(國名)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신대륙 발견 당시에, 오늘날의 멕시코 중심부를 지배하던 종족은 아스텍카(Azteca)였고, 그들이 세운 나라를 그들은 멕이고/멕이고(México)라고 불렀다. 멕이고는 ‘멕이가 사는 곳’이라는 뜻이었다¹⁾.

아스텍가인의 역사에 따르면, 그들이 멕이/멕이(Méxi)라고 불리기 시작한 유래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오빈 고문헌(Códice de Aubin)이나 보투리니 고문헌(Códice de Boturini)과 같은 아스텍가인들의 역사에 관한, 그림으로 기록된 고대 문헌에 따르면, 아스텍가인들은 원래 아스땅(Aztlán)에 살았고, 무당 기질(Huitzil)의 선동으로 820년경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났다²⁾. 기질은 테자귀-들(Tetzahuitl)이라는 새(鳥)를 신(神)으로 모시던 무당

1) Tovar, Juan de(2001), 『Historia y creencia de los indios de México』, 16세기 말 문헌, Edición de José J. Fuente del Pilar, Miraguano Ediciones, p. 84: “México quiere decir Lugar de los mexicanos (멕이고는 멕이인들이 사는 곳을 뜻한다.)”

2) 멕시코 역사에 관한 원래 문헌들은 그림으로 그려진 책으로서, 대부분이 제목이 없었다. 책 제목은 16세기 이후에 그 문헌들을 수집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오빈 고문헌은 그 문헌을 수집했던 ‘오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고, 보투리니 고문헌도 역시 ‘보투리니’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제목이다.

이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신이 우리에게 살기 좋은 새로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떠나자”고 외치며 선동했고, 사람들은 마침내 고향을 버리고 개나리붓짐을 매고서 그를 따라 나섰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고리(Coli/ Colli)족이 사는 땅이었다. 고리족들은 태양신을 믿던 사람들이었다.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땅으로 떠날 때, 8개 고리족 씨족들이 함께 떠나겠다고 따라 나섰다. 아스텍의 언어·문화 연구의 대가였던 에두아르드 켈러(Eduard Seler)에 따르면, 그 후에 아스태가인들은 처음으로 인신공양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신들을 ‘멕이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아스태가’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한다³⁾.

또 하나의 이야기는 ‘멕이(Mexi)’는 아주 오래전에 – 아마도 이동 초기에 – 아스태가인들의 족장의 이름이었을 것이라는 전설이다. 아래 원문을 보기로 한다⁴⁾.

Cuenta Juan de Tovar en su crónica, que los *nahuatlacas*, literalmente “gente que se explica bien” en alusión a su lengua, el *náhuatl*, *mexicanos*, o *mexicas*, por referencia a Mexi, su primer caudillo, abandonaron la isla de *Aztlán*, su mítico lugar de origen, en “el año del Señor de 820”, y “llegaron a Nueva España en el 902”.

환 데 토바르가 그의 역사서에서 말하기를, 나와들어, 멕이카노어 혹은, 그들의 최초의 족장이었던 멕이/멕이(Mexi)로 인하여, 멕이카어라고 불리는 그들의 언어로 추정하면, “잘 설명되는 사람들”을 뜻하는 나와다가인들(*nahuatlacas*/나와 다가=나와 모든 사람들이-필자역)인들은 아스땅(*Aztlán*) 섬을 기원후 820년에 떠났고, 뉴스페인(멕시코)에는 902년에 도착했다고 한다⁵⁾.

3) Seler, Eduard(1990), 『Collected works in Mesoamerican Linguistics and Archaeology』, vol. 2, p. 21: “And there the Aztecs changed their name. They called themselves Aztecs no longer, but Mexicans(그리고 그곳에서 아스텍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아스텍이라고 부르지 않고, 멕이 사람이라고 불렀다.)”

4) Tovar, Juan de, op. cit., p. 10.

5) 원문에 나오는 아스태가인들의 언어 명칭인 나와들(*Náhuatl*)이라는 어휘는 원래 ‘나와다들이(*Nahuatlattolli*)’이다. 이것을 줄여서 흔히 ‘나와들’ 혹은 ‘나와’라고 말한다. 그런데 ‘나와다들이’에 대한 해석이 학자 마다 제 각각이다. 본문의 편저자는 프랑스 학자 미셸 로니(Michel Launey, 1977)의 의견에 따라서 ‘분명한 언어’로 해석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잘못되었다. ‘나와다들이’는 우리말로써, ‘나와 다들이’ 즉 ‘나와 모든 사람들이’를 뜻하고, ‘와’는 공동격 조사이고, ‘이’는 주격조사이다. 자세한 설명은 다른 논문으로 넘긴다. 또 아스땅을 섬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아스태가인들이 ‘배를 타고 왔다’고 많은 그림 역사서와 전설에 기록되어 있는데, 멕시코 주변에서 배를 타고 멕시코에 도착했다면, 그들은 원래 멕시코 근처의 어느 섬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따라서 아스땅도 섬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오랫동안 멕시코 주변의 수많은 섬을 조사해서 아스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완전히 실패했다. 피라미트가 있는 문명의 흔적조차 있는 섬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아스땅은 아마도 아스태가인들이 지어낸 거짓말 또는 황당한 전설적 이야기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필자는 일련의 연구와 발표에서

이 기록에서 보듯이, 맥이(Méxi)라는 명칭은 아스태가인들의 역사에서 아스땅을 떠났던 시기, 즉 아스태가인들의 초기 역사에 등장하는 이름이며, 족장의 이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기록이 있다. 19세기 말 아무르강 하류의 길약족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곳 사람들의 생활풍습과 언어 등을 조사했던 버솔드 로퍼(Berthold Lauffer)에 따르면, 씨족 구성원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⁶⁾.

길약족은 오래전부터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언어가 우리말과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한 학자는 러시아인 크레노비치이고,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김방한 교수와 강길운 교수가 길약어와 한국어의 일치 관계를 연구했다⁷⁾. 강길운 교수는 길약어와 한국어의 유사점을 조사나 서술형 종결 어미와 같은 어휘(문법 기능어)와 일반 어휘어로 나누어 비교하여, 길약어와 우리말은 ‘쌍둥이 언어’라고까지 말했다⁸⁾. 민족을 결정하는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이다. 따라서 필자는 길약족은 아메리카로 이동하다 아무르강 하류에 남은 우리민족이라고 본다⁹⁾.

따라서, 버솔드 로퍼의 발견에 준하여 추정해 보면, 우리 선조들은 옛날에 개개인의 이름이 없었고, 씨족 전체가 같은 이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삼국지위지동이전』에 기록된 부여의 ‘마가(馬加)·우가(牛加)·저가(猪加)·구가(狗加)’ 등과 같은 이름도 관직명이 아니라, 씨족 전체의 이름이자 그 구성원들의 이름일 것이다.

결국, 맥이/멕이(Méxi)라는 호칭은 아스태가인들의 초기 역사 속의 족장의 이름인 동시에 그 전체 집단을 가리키는 명칭일 것이다. 더구나 아스태가(Azteca)라는 명칭 대신에 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리족’과 만난 이후이다. 즉 맥이족이라는 칭호는 고리

‘그들이 섬을 건넜다’는 것은 그들이 옛 고조선 땅 아사달(阿斯達)에서 북상하여 러시아 캅차카 반도로 가서, 섬으로 이루어진 ‘알류산 열도를 배를 타고 건넜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동 루트에는 수많은 우리민족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 그 한 예가 아마낙(Amaknak) 섬에서 발굴된 두 곳의 온돌 유적이다.

- 6) Lauffer, Berthold(1900), 「Preliminary Notes on Exploration among the Amoor tribes」, 『American Anthropologist』, 2권 2호, p. 318.
- 7) 김방한(1980)에서 김방한 교수는 크레노비치 교수의 견해를 따라서 차용관계로 보고, 길약인을 숙신의 후예로 보았다. 잘못된 견해이다. 『삼국지위지동이전』에는 숙신은 부여-고구려와 말이 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숙신의 풍습도 매우 달랐다. 그러나 길약인들은 언어뿐 아니라 풍습과 전설에서도 우리민족과 많은 공통점이 있고, 전설 이야기에도 우리말이 나온다. 필자는 그들이 우리민족의 직접적 후예라는 매우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는 현재 집필중인 ‘우리민족의 대이동- 아메리카 인디언은 한민족’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밝히겠다.
- 8) 강길운(1990),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 새문사, 341쪽
- 9) 필자가 추가적으로, 그들이 우리민족이라고 보는 근거는 길약(Kilyak)이라는 그들의 종족 명칭이 원래 ‘길에게(Kileke)’라는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길에게는 ‘길의 것’, 즉 ‘길에 남은 것들’을 뜻한다. ‘게=것’은 경상도 사투리에 ‘내 것’을 ‘내께’라고 발음하는 데서 알 수 있다.

족과 대등한 칭호, 즉 큰 범주에서 종족을 구별하는 칭호였던 것이다.

우리민족의 시작은 예맥족이었다. 예족은 '고리족'을 뜻하고, 맥족은 요동 중심으로 살면서 고조선을 건국했던 사람들이다. '맥'이라는 호칭은 5세기 이후에는 '맥이(貊耳)'라고 불렀다(예: 후한서(後漢書, 85))

필자는 지금까지 맥이/멕이(Méxi)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역사적 관점에서 그 일치성을 논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멕이고(México)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은 다음과 같다. 멕이코(México)는 '멕이(Méxi) + co(고)'로 구성된 명칭이고, '멕이가 사는 곳'이라는 뜻이다.

멕이(貊耳)를 발음해 보면, '맥'을 강하게 발음하게 된다. 이유는 받침소리인 'ㄱ' 때문이다. 받침소리는 어휘의 발음을 '달아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발음을 강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이것을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옮기면, '맥'에 악센트가 들어가게 되어 'Méxi'로 기록하게 되고, 발음은 '멕이/멕이'가 된다. 그리고 받침소리가 없는 스페인어는 이것을 '메히'로 발음했다. 자음 'ㄱ'과 'ㅎ'의 구강(口腔)에서의 발음 위치가 거의 같다는 것을 고려하고, 우리민족이 문자가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옛날 우리민족에게는 'ㅎ'소리와 'ㄱ'소리는 같은 음(音)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멕이'는 곧 '매히/메히'가 된다.

마지막 어휘 '고(co)'는 장소를 뜻하는 어휘로서, 우리말 '곳'이다¹⁰⁾. 받침소리 'ㄱ'은 많은 경우에 탈락시켰다. 우리말의 특성은 받침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즉, '초성+중성+종성'으로 구성된 언어이다. 그러나 스페인어와 같은 유럽어들은 받침소리에 해당하는 종성이 없다. 따라서 '곳'을 스페인어로 표기할 때, 받침소리 'ㄱ'을 표기할 수 없다. 만약 표기하여 'cod'와 같이 표기하면, 스페인어 특성에 따라서 '고드'라고 발음하게 된다. 결국 원주민들의 '곳'이라는 말을 스페인어로 가장 잘 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받침소리를 무시하고 'co'로만 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페인어는 우리말에 있는 평음, 경음, 격음의 구별이 없고, 오직 경음으로만 발음한다. 따라서 '고(co)'는 스페인어에서 '꼬'로 발음된다.

결론적으로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을 '멕이곳'이라고 스페인인들에게 말했고, 스페인인들은 México라고 기록하고, 스페인식 발음과 원주민의 발음이 섞인 형태인 '멩이꼬' 또는 '메히꼬'로 발음하기 시작하여, 이 발음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2.2. 멕이족의 본향 아스땅(Aztlan) = 아사달(阿斯達)

멕시코 아스텍제국을 일으킨 사람들을 아스테가(azteca)라고 한다. 그들의 해석에 의하

10) 멕시코 원주민들이 사용한 '장소'를 뜻하는 우리말은 '곳(co)'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무슨 땅'이라는 식으로 표현된 장소 명칭이 많이 나오는데, '땅'을 '땅(tlan), 따(tla), 달(tlal)'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 이 세 가지 형태는 모두 우리말에도 있다. '따'와 '달'은 땅의 고어로 설명되고 있다. '땅'의 세 가지 형태는 미국 인디언들도 사용했고, 멕시코 남쪽 과테말라 인디언들도 사용했는데, 이 지역에서는 T 다음에 L이 없는 '땅(tan), 따(ta), 달(tal)'로 나온다.

면 아스(az)는 ‘하얀, 흰’을 뜻하고, 테가(teca)는 ‘사람’을 뜻한다¹¹⁾. 아스태가는 ‘하얀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흰색을 매우 숭상하였고, 멕시코에 도착한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살던 아스땅(aztlán), 즉 하얀 땅을 찾아 헤매었다. 그리고 마침내 1325년, 오늘날의 멕시코시티에 있는 테호코고(Texcoco) 호수 안에 있는, 30만평 규모의 낮은 섬에서 조상들이 살던 그 땅과 비슷한 곳을 발견했고, 그곳에 훗날 아스텍제국의 수도인 나라를 세웠다.

그곳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곳이 조상들이 원래 살던 곳과 비슷했다는 것을 멕시코 고대 문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¹²⁾.

“Lo primero que hallaron en aquel manantial fue una sabina **blanca** muy hermosa, al pie de la cual manaba aquella fuente, luego vieron que todos los sauces que alrededor de sí tenía, **todos eran blancos** sin tener ni una sola hoja verde, y **todas** las cañas y espadañas de aquel lugar eran **blancas**, y estando mirando esto con gran atención comenzaron a salir del agua ranas **todas blancas** y pescados **blancos**, y entre ellos algunas culebras **blancas** y muy veloces...”

“그 샘에서 그들이 제일 처음 발견한 것은 하얗고 아름다운 두송나무 한그루였다. 그 나무 밑에서 샘이 솟아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버드나무들을 보았는데, 모든 나무들이 흰색이었고, 녹색은 단 한 잎도 없었다. 또 그곳의 모든 갈대와 향포도 흰색이었고, 이것들을 주목하고 있는 동안 그 샘물에서 개구리들과 물고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흰색이었고, 그것들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는 몇 마리의 뱀도 있었는데 흰색이었다...”

이 기록을 보면, 그들이 나라를 세운 곳은 ‘모든 것이 흰’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들이 얼마나 흰색을 숭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민족의 시작을 알려주는 신화는 단군신화이다. 단군신화에는 ‘단군왕검이 왕위에 오른 뒤에, 당고(唐高) 요(堯)가 즉위한 지 50년 되던 경인년에 평양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비로소 나라를 조선(朝鮮)이라 칭하고, 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白岳山阿斯達)로 옮긴 후에, 1500년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학계와 국어학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고, 아직도 설명하

11) 『삼국지위지동이전』에는 고구려의 왕족이나 지배계층을 대가(大加)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 한자음의 발음은 ‘태가’와 유사했다.

12) Tovar, Juan de(2011), op. cit., p. 36

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아사달(阿斯達)이 무슨 뜻이며, 그곳이 어디인가이다.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은 ‘아사’는 ‘밝음, 아침’을 뜻하고, ‘달’은 땅을 뜻하여, 아사달은 ‘아침의 땅’이라는 해석이다. 이 해석은 사학계의 원로 이병도의 ‘조선은 아사달을 뜻한다’라는 견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병도는 그의 해석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다.

단군신화는 원래 중국 역사서 『위서(魏書)』에서 인용했다고 했다. 외국인인 다른 나라의 말을 기록하는 방법에는 차음(借音)과 차훈(借訓)이 있다. 차음은 그 나라 말을 발음에 따라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차훈은 자기 말로 번역하여 옮기는 것을 말한다. 차음의 경우에는 ‘소리’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그 민족의 말을 알 수 있지만 뜻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차훈은 반대로 뜻을 알지만, 그 민족의 원래 말은 알 수 없다. 아사달(阿斯達)은 중국 한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해석’되지 않는 글자의 조합이다. 즉 뜻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아사달은 차음으로 기록된 지명이다. 차음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소리’를 기준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우리민족의 말을, 그 당시의 중국어 발음이 일치하는 어휘로 옮겼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아사달(阿斯達)의 고대 중국어 발음이 중요하다. 이 어휘의 고대 중국어 발음은 오늘날의 발음과 같은 ‘아스다’이다¹³⁾.

따라서, 우리는 아스텍족의 고향 아스땅(Aztlán)과 이 발음의 대응관계를 주목해야 한다.

아스땅(Aztlán) = 아스(Az) + 땅(tlán)
 아사달(阿斯達) = 아스(阿斯) + 다(達)

우리말에서 ‘땅’의 고어로 ‘달’과 ‘쟈’가 있다. 따라서 ‘아스땅’과 ‘아스다’는 발음에서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지명이 뜻까지 같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아스텍의 아스땅은 ‘하얀 땅’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문은 ‘아사달도 하얀 땅을 뜻하는가’로 요약된다.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바로 아사달(阿斯達)이라는 기록 앞에 백악산(白岳山)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멕시코 원주민어를 바탕으로 우리민족에 대한 고대 중국 기록을 연구해 본 결과, 중국인들은 우리말을 차음하여 기록할 때, 바로 그 옆에 중국어로 뜻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다음에 다루게 될 테백(tepec)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사달(阿斯達)은 곧 백악산(白岳山)인 것이다. 즉 아사달은 ‘하얀 땅, 하얀 산’을 뜻한다. 우리말 고어 ‘달’은 ‘땅’도 뜻하고 ‘산’도 뜻한다¹⁴⁾.

따라서 아스텍의 아스땅(Aztlán)은 고조선의 도읍지인 아사달(阿斯達)과 발음과 뜻에서 일치한다.

13) 李珍華, 周長楫(1993),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

14) 김방한(1980), 「원시한반도어」, 『한국문화』,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p. 18

2.3. Tepec(태백) = 산

‘태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어휘이다. 우리민족 최초의 건국 신화인 단군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유사』 고조선 편에는 ‘환인이 아들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니 삼위태백이 가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만하다(下視三危太伯可以弘益人間)’라는 기록이 있다. 바로 이 삼위태백(三危太伯)의 태백(太伯)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두고 국어학계와 사학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논란을 일어 왔다.

이것은 단군신화만의 논란은 아니다. 주몽의 탄생과 고구려의 건국과정의 영토 범위도 논란이 심하다. 1145년 기록된 『삼국사기』와 1281년 기록된 『삼국유사』에는 주몽의 탄생과 관련하여, 북부여 왕 해모수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고, 성인이 된 주몽이 동부여의 왕자 대소의 위협을 피하여 남하하여 졸본에 나라를 세운 후, 기원전 32년 태백산 동남쪽 행인국(行人國)을 정벌했다고 있다.

그런데 논란을 더욱 깊게 만든 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태백산이라고 불렀던 산들이 여러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산들이 백두산, 묘향산, 강원도의 태백산 등이다. 따라서 일부 사학자들은 태백산을 백두산으로 비정하여, 아무르강 유역에 있었을 북부여의 늙은 왕 해모수가 멀고 먼 압록강 남쪽까지 놀러 왔다가 유화부인을 만났다고 보고 있고 (해모수가 유화부인을 만난 시기는 손자인 금와가 이미 왕이 된 시기였다), 또 행인국을 오늘날의 함경도 어느 곳으로 비정하여, 주몽시대에 고구려의 영토 범위가 이미 함경도까지 확대되었다고도 주장한다. 특히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은 ‘태백산=묘향산(太伯今妙香山)’이라는 주석까지 붙여 놓음으로써, 오늘날 북한의 고조선 평양 기원설의 근원을 제시하고, 평양에 단군릉까지 만들게 했다. 따라서 태백(太伯/太白)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민족 고대사가 매우 크게 바뀌게 된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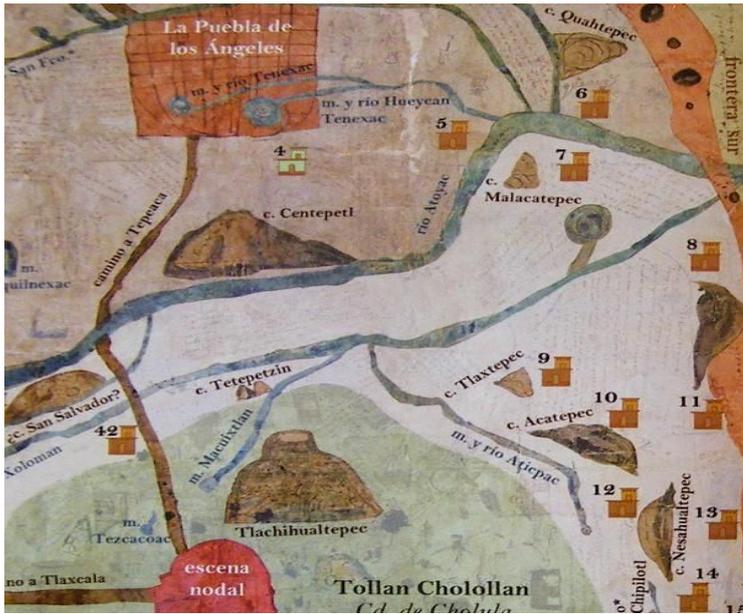
태백산(太白山)에 대한 오늘날 우리나라 사학계의 의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백두산설, 둘째 산동반도의 태산(泰山)설, 셋째 어떤 보통 명사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다¹⁶⁾.

그런데 멕시코의 모든 산들이 태백(Tepec)이라고 불린다. 태백(Tepec)은 나와들어로 ‘산’을 의미하는 보통명사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16세기말에서 17세기 중엽 사이에 기록된 『Códice de Cholula(출룰라 고문헌)』에 실린 출룰라 지방의 지도를 보기로 한다¹⁷⁾.

15) 태백산의 ‘백’을 伯(으뜸 백)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白(흰 백)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의 ‘단군신화’ 설명에서는 太白山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삼국유사에서는 太伯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표기의 차이는 우리말을 중국 한자로 음차 표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6) 한국고대사학회장 조인성(경희대)은 태백(太伯)을 보통명사로 본다고 했다(2010년,개인대담).『환권으로 읽는 고구려 왕조실록』의 저자 박영규는 태백산에 대한 제 의견을 백두산설, 태산설, 그리고 그 밖의 어떤 산이라는 설로 요약하고 있다. 박영규(2009), 44쪽

17) 저자미상(2002), 『El Códice de Cholula』, Francisco González-Hermosillo A. & Luis Reyes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산들이 ‘~태백(tepec)’ 또는 ‘~태배(tepe)’로 표기되어 있다. ‘태배(Tepe)’는 받침 ‘ㄱ’에 해당하는 ‘c’가 생략된 표기 형태이다. 스페인어는 가로 풀어쓰기 언어로서, 받침소리를 원칙적으로 발음 하지 못한다. 받침소리를 표기하면, 즉 tepec 이라고 표기하면 ‘태백’이라고 발음하기 보다는 ‘태배ㄱ’라고 발음하기 쉽다. 따라서 이 받침 소리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생략 대신에 원주민들의 발음을 잘 표기를 위하여 스페인 신부들이 도입한 수단이 소위 ‘갑자기 발음 멈춤’을 표시하는 기호 ‘?’ 또는 ‘’의 도입이다¹⁸⁾. 따라서 ‘tepe?’라고 표기하면 [태배]라고 발음하되, 갑자기 멈추어야 한다. 그렇게 발음 하면 tepe는 ‘태백’처럼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대화된 여러 문헌에서 이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¹⁹⁾

García가 연구하고 주석을 단 본,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 Grupo Editorial Miguel Angel Porrúa, p. 28

18) 이 표기를 영어로 glottal stop(발음 멈춤)이라고 하고, 스페인어로는 saltillo (발음 멈춤)라고 한다.

19) 우리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음절구조이다. 우리말 음절구조는 ‘초성+중성+종성’이다. 이것은 곧 ‘자음+모음+자음’의 구조로서 보통 CVC 구조라고 한다. 유럽어들은 받침소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CV 구조이다. 나와더라도 우리말처럼 CVC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스페인어나 영어 같은 유럽어들은 음절의 마지막 요소인 받침소리(C)에 익숙하지 못하다. 받침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음절이 ‘닫힌 소리’로 끝난다. 따라서 이 닫힌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초기 스페인 신부들이 고안해 낸 것이 본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기호이며, 이것이 나타나면 갑자기 발음을 멈춤으로써 닫힌 소리를 흉내 내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음성론적으로 이런 면에서도 우리말과 나와들어는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튼 우리는 위 지도에서, 아스테카인들이 모든 산들을 ‘태백(tepec)’이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세기 후반 나와들어를 기록하고, 그 어휘를 약 3000여개 모아서 기록해둔 클라비헤로(Clavijero) 신부나 19세기에 나와들어 사전을 쓴 시메온(Siméon)도 Tepec(태백)이 ‘산’을 의미한다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마지막 이중자음 ‘-tl(들)’은 우리말의 복수접미사 ‘-들’이다.

Tepe(c)tl - monte (산) (Clavijero 문헌)²⁰⁾

Tepe(c)tl - montaña (산) (Siméon의 사전)²¹⁾

이것은 나와들어의 tepec(태백)이 ‘산’을 의미하고, 아스테카인들이 우리민족이라면, 우리말의 태백(太白)은 보통명사로서 ‘산’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지적한 우리민족 역사 기록에 나오는 ‘태백(太白)’이 ‘높고 흰’을 뜻하거나 특정 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山)’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실을 밝혀 준다. 먼저 우리 역사에 기록되거나 지명으로 나오는 태백산(太白山)은 그 어휘 구조가 ‘태백 + 山’ 이 된다.

태백산(太白山) → 태백 + 山 (뜻: 산+산)

앞의 ‘태백’은 순 우리말로서 ‘산’을 의미하는 어휘이고, 뒤의 山은 중국 한자어이다. 즉 그 원래 어휘구조는 한자어인 ‘太白山’이 아니라 ‘태백+山’이고, 그 뜻은 ‘산+산’이다.

이러한 어휘구조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필자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특수한 언어 환경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민족은 4세기를 전후하여 중국으로부터 한자어를 받아들여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였고, 불교의 보급과 함께 한자어가 일반화되어 가면서 점차 우리민족 고유의 어휘가 잊혀져 가게 되었다. 고유한 우리말이 한자어로 대체되어 가는 동안 고유한 우리말을 계속 사용하는 계층—주로 교육을 받지 못했던 일반백성—과 한자어를 사용하게 된 지배계층—교육받은 계층—의 언어가 달랐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계층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계층이 한자어를 사용하게 되기까지 오랫동안, 이 두 어휘를 함께 사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대한 증거는 많다. 가깝게는 일본 지배하에 있던 20세

이웃한 일본어조차도 기본 음절 구조가 CV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음절구조의 일치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마야 문명의 지배자들도 우리민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야어도 기본적으로 CVC구조이다. 마야어에도 우리말이 명백하게 나오며, 고고학적 유물도 우리민족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있다.

20) Clavijero, Francisco Xavier(1974), 『Reglas de la lengua con un vocabulario』, p. 134

21) Siméon, Rémi(1999), 『Diccionario de la lengua náhuatl o mexicana』, 19세기 사전, Siglo Veintiuno, 1999

기 초에는 ‘모찌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고, 이 말은 1970년대까지도 흔히 듣는 명사였다. ‘모찌떡’은 일본어로 떡을 의미하는 ‘모찌(もち)’에 우리말 ‘떡’을 사용한 것으로, 그 어휘 구조는 ‘もち+떡’이고, 그 의미는 ‘떡+떡’인 것이다. 이러한 중복 어휘 구조는 우리말에 매우 흔하다. 예를 들어, ‘벌판’도 ‘벌(넓고 평평한 땅) + 판(넓고 평평한 땅)’을 의미한다. ‘벌’은 ‘서라벌, 달구벌’에서 보듯이 넓고 평평한 땅을 의미하고, ‘판’도 ‘모래판, 모판, 들판’ 등에서 보듯이 넓고 평평한 땅을 의미한다. 앞에서 본 ‘백악산아사달(白岳山阿斯達)’도 이와 같고, ‘태성왕(太聖王)’도 이와 같다.

결론적으로 우리민족 역사와 지명에 등장하는 태백산은 한자어의 뜻에 따라 ‘회고 큰 산(太白山)’이나, ‘크고 으뜸인 산(太伯山)’이 아니라, ‘태백+山’으로 된 어휘로서, 그 의미는 ‘산+산’을 뜻한다²²⁾. 이로써 우리는 앞에서 검토한 우리민족의 역사 기록에서 ‘태백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난점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고조선의 건국 설화인 단군 신화의 태백산은 백두산이 아니라 고조선의 건국 지역으로 알려진 요동의 어느 흰 산을 의미할 것이다. 주몽이 정복한 행인국의 북서쪽에 있는 태백산도 고구려 초기 정복 전쟁을 벌였던 만주 남쪽 지역의 어느 산을 의미할 것이고, 북부여 왕 해모수가 유화부인을 만났던 우발수 근처의 산도 만주 일대의 어느 산일 것이다. 북한의 고조선 평양설도 그 근거가 부정될 수밖에 없다.

참고로 ‘태백들(tepectl)’이나 ‘태배들(tepetl)’의 접사 ‘-들(-tl)’은 우리말의 복수형 접사 ‘들’과 발음과 뜻에서 정확하게 같다. 멕시코 원주민 언어에서는 이 복수형 접사가 신대륙 발견 이전에 이미 복수 의미를 잃고, 아무런 뜻도 없는 허사(虛詞)로 변하였다. 그래서 위 지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접사는 사용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했다. 나와들어에는 복수형 접사가 원래 두 개 있었는데, 다른 하나는 ‘-떼(-te)’이다. 이것도 우리말에서 ‘소떼, 벌떼’ 등에서 사용되는 복수형 접사 ‘떼’와 정확하게 같다²³⁾.

22) 아스텍카인들, 즉 맥이족이 요동의 아스땅(=아사달, 하얀 땅)을 출발한 때가 820년경이었다. 그들은 북쪽의 옛 고리족이 살던 땅을 지나서, 어느 곳에 가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건너갔다. 그 ‘어느 곳’이 필자의 판단으로는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이다. 그런데 이곳에서 배를 탈 때의 주변 자연 환경을 기록한 부분이 멕시코 문헌에 남아 있다. 스페인인과 원주민 여인의 혼혈아로 태어난 크리스토팔 델 카스티요(Cristobal del Castillo)가 16세기 말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Historia de la Venida de los Mexicanos y Otros Pueblos e Historia de la Conquista』에는 ‘이스 산(iz zan)’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이 말의 뜻은 ‘하얀 산’이다. 멕시코 나와들어에서 ‘하얀’을 뜻하는 어휘는 ‘이스(iz), 이츠(itz), 이츠(ich), 아스(az)’ 등으로 나온다. ‘산(zan)’은 중국 한자어 ‘山’으로 보인다. 이것은 캄차카 반도의 눈 덮힌 하얀 산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고, 또 언어적으로는 9세기 초에, 그들이 원래 살던 요동의 아사달 지역에서는 이미 우리말 ‘태백’보다 중국 한자어 ‘산(山)’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나와들어의 ‘태백’은 이미 멕시코에 먼저 도착해 살던 고리족들이 사용하던 어휘인 것으로 판단된다. 맥이족이 비록 아스텍제국을 건설했지만, 멕시코 전역에 퍼져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고리족 계열이었다. 따라서 고리족의 어휘인 ‘태백’이 멕시코 전역의 산 이름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23) 복수형 접사 ‘떼’는 우리말뿐 아니라 만주어에도 있다. 우리말에서는 짐승이나 곤충에게만 사용되지만, 만

그리고 위 지도상의 산들의 명칭을 살펴보면, 몇 개의 산은 특별한 설명 없이도 우리말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과흐테펙(Quahtepec)’은 ‘독수리의 산’을 의미한다. ‘과(Qua)’는 일반적으로 ‘과우(Cuau/ Guau)’로 표기되는데, 독수리의 울음소리를 흉내 낸 의성어이다. ‘센테페틀(Centepetl)’은 ‘센 산들’로 해석된다. 멕시코 원주민들은 우리민족처럼 산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고, 산에는 산신(山神)이 있다고 믿었다. ‘센 산’은 ‘센 신이 있는 산’을 의미한다. 나머지 산들도 나와들어를 조금만 이해한다면 쉽게 그것들이 우리말로 해석되는 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다지왈테펙(Tlachihualtepec)’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위 지도의 가운데 하단부에 있는 산이 ‘다지왈테펙(Tlachihualtepec)’이다. 그런데 이 산은 산(山)이 아니라 피라밋이다. 출몰라의 역사에 따르면, 대략 12세기 중엽에 북쪽의 Tolteca[톨떼카](톨태가) 문명이 내부 불화로 무너진 후에 상당수의 유민들이 동남쪽으로 200km정도 이동하여 새로운 도시국가인 출몰라를 건설하였다. 이 도시는 손성태(2010)에서 밝힌 바대로 우리민족의 문화가 매우 많이 남아있었던 지역이다. 남자들은 검은 갓 모자를 쓰고, 희고 긴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으며, 길을 갈 때에는 손에 긴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 또 노래를 매우 좋아하여 길을 갈 때에도 노래를 늘 부르는 습관이 있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발치(拔齒)를 한다던지 편두(偏頭)를 하는 등과 같은 우리민족 고대 풍습과 매우 유사한 풍습이 있었다. 또 아래에서 인용한 가브리엘 데 로하스(Gabriel de Rojas)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풀(나물)을 뜯어 먹는 풍습이 있었고, 개를 잡아먹는 식습관도 있었으며, 마을마다 입구에는 신단(성황당)이 있었다고 한다.

이 출몰라에는 멕시코에서 가장 큰 피라밋이 있는데, 그 피라밋은 아도브 벽돌로 수대에 걸쳐 지어진 것이다. 아도브 벽돌은 진흙에 풀을 잘라서 섞어 만든 것이다. 우리민족도 옛날 집을 지을 때 벽은 황토 흙에 짚을 잘라 섞어서 벽을 발랐다. 멕시코 원주민뿐 아니라, 아메리카 인디언들 -예를 들어, 아리조나주와 멕시코주의 호피족과 태와족-도 집의 벽을 만드는 방법이 우리민족과 같다.

2.4. 피라밋 = Tepec (태펙) ‘산’

이렇게 문화적 배경이 같은 출몰라의 지도에서, 흙과 풀을 섞어서 만든 벽돌로 지은 피라밋을 ‘다지왈테펙(Tlachihualtepec)’이라고 불렀다. 이 명칭이 우리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16세기 출몰라에 관한 중요한 문헌에서 아래 문장을 인용하기로 한다²⁴⁾. 이 문헌은

주어에서는 사람에게도 사용되었다. 나와들어에서 ‘떼’는 사람, 사물, 동물의 복수형 접사로 사용되었다. 복수형 접사 ‘들’과 사용상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되고 있다. 나와들어에서 뜻을 상실한 접사 ‘-들(tl)’은 새로운 복수형 접사 ‘-메(me)’로 대체되었다.

24) Gabriel de Rojas(1979), 『Las Relaciones de Cholula, Culhuacan, Teotzacualco y

스페인 국왕 펠리페2세가 마드리드 북부 엘에스코리알에 수도원과 도서관을 지은 후, 이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하여, 1577년 신대륙 각 지역 지배자들에게 50개의 문항을 보내어 대답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 출몰라의 지배자였던 가브리엘 데 로하스(Gabriel de Rojas)가 쓴 보고서 내용 일부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출몰라의 사람들은 뱀용(龍=케찰꼬아-들: '꽤 잘 꼬아'로 이해됨)을 믿는 신앙이 있었고, 손성태(2010)의 '아스텍제국에 나타난 우리민족의 풍습/비교민속 43집'에서 밝혔듯이, 사람들은 평소에 흰 옷-두루마기-을 입었으며, 큰 모자-갓-를 썼고, 마을마다 그 입구에는 길가에 작은 신당(성황당으로 추정됨)이 있었는데, 그 수가 약 800개였으나,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2개만 남아 있고,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외에 주목할 점으로 출몰라는 아스텍 제국이 건설되기 전에는 골와족과 절대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했고, 아스테카인들이 멕이코 계곡에 와서 골와족과 함께 아스텍제국을 건설한 뒤에는 아스텍제국과 절대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한 곳이다, 여기서는 아래 인용한 부분만 보기로 한다.

hazen los españoles en las indias. llamanla tambien cholollan porque la tierra donde esta ciudad esta fundada dizen se llamaua asi antiguamente quando ellos uinieron á poblar y en la lengua mexicana Choloan quiere dezir huir y choloani huidor y entiendese que este nombre les pusieron los comarcanos como aduenizos y huidores de su tierra Tlachiuhaltepetl quiere dezir cerro hecho á mano como lo es uno que está en esta ciudad segun se dirá adelante.

“이 도시는 원주민들이 툴람 출몰람 다지왈테백이라고 불렀고, 또 툴람 출몰람이라고도 불렀다. 툴람은 여러 가지 기능공들을 의미한다... 멕시코어로 툴태가들(tultecatl)은 기능공을 의미한다...또 원주민들은 이 도시의 건설자들이 툴람이라고 불리던 마을에서 왔다고 한다... 그들은 이 도시로 와서 정착했고, 그것(이 도시)도 툴람이라고 불렀다... 또 출몰란이라고도 불렀다... 멕시코어에서 출로안은 '도망치다'를 의미하고 그리고 출로안이는 '도망친 사람'을 의미한다... 다지왈테백들은 '손으로 만든 산(언덕)'을 의미한다.”

이 기록에는 몇 개의 중요한 우리말이 나온다. 또 우리민족의 역사에서 아직 알지 못했던 피라밋의 우리말 명칭이 나온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고구려는 많은 피라밋을 건설하였다. 장수왕릉과 태왕릉이 피라밋으로 건축되었고, 장수왕릉이 있는 집안 지역에만 약 1천기가 넘는 피라밋이 있으며, 만주 일대에는 총 약 1만기가 넘는 피라밋이 있다고 한다. 이 중 대다수가 부여-고구려가 그 지역을 지배하던 기원전부터 3세기까지 건설되었다.

Ameltepecque』, 1581년 문헌, p. 160

중요한 점은 이 건축물을 우리 선조들이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아직 모른다는 점이다. 피라밋은 우리말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어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우리 선조들이 피라밋을 건축해두고 이름을 짓지 못했거나, 그 이름이 있었는데 한 자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우리말이 잊혀지는 과정에서, 그 이름도 잊혀져 버린 것이 아닐까 이다. 논리적으로 첫 번째 가능성은 타당성이 없다. 그렇게 수많은 피라밋을 건설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명칭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가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피라밋의 순 우리말 명칭도 잊혀져버렸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의 85% 정도가 중국 한자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므로, 고대 선조들이 사용하던 수많은 우리말 어휘들이 잊혀져 버렸다고 가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위에서 인용한 기록에, 출톨라의 피라밋 명칭 ‘다지왈태백(Tlachihualtepec)’은 원주민 말이고, 그 뜻은 ‘다 지은 산(cerro hecho a mano)’라고 해석까지 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 피라밋을 지은 원주민들은 의복과 풍습도 우리 선조들의 것과 같았다. 우리는 앞에서 ‘태백(tepec)’이 우리역사가 그 뜻을 잃어버린 순 우리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인용문에서는 원주민들이 피라밋도 ‘태백(tepec)’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 말이 우리말이고, 출톨라를 건설한 사람들이 우리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태백(tepec)’ 앞에 수식어로 붙은 ‘다지왈(tlachihual)’이다. 이 부분이 ‘다 지은, 다 만든’을 뜻한다고 인용문에서 이미 해석까지 해 두고 있다. 이것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쉘리반(Sullivan)의 문법서의 설명을 인용해 보기로 한다²⁵⁾.

- a. chihua(지와) ‘build, make’ 짓다, 만들다
- b. calchihua(갈지와) ‘build a house’ 집을 짓다

언어의 일치는 발음과 뜻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와들어 동사 chihua(지와)는 우리말 ‘지어’ 또는 ‘지은’과 비슷하다. 언어의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감안하고, 또 ‘어/으’ 발음은 스페인어로 표기되지 못하여 유사한 발음으로 대체 표기되곤 했으므로, 이 동사는 우리말 ‘지어/지은’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Calchihua(갈지와)의 Cal(갈)은 나와들어에서 ‘집’을 뜻한다. 나와들어에서 ‘집’을 뜻하는 어휘는 두 개 있다. Cal(갈)과 chii(지)이다. Chii(지)는 받침소리를 살리면 우리의 ‘집’이 된다. Cal(갈)은 gal(갈)로도 표기되어 문헌에 나온다. 몽골에서는 그들의 전통가옥인 유목민의 집을 ‘겔/게르’라고 한다. 이것을 고려할 때, 이 어휘는 몽골어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고, 또는 사라져버린 부여-고구려어일 수도 있다.

25) Sullivan, Thelma D.(1988), 『Thelma D. Sullivan’s compendium of Nahuatl Grammar』, University of Utah Press., pp 1 & 51

부여-고구려어가 몽골어와 유사한 면이 있을 수 있는 정황 증거는 부여-고구려계 우리 선조들이 몽골과 매우 가깝게 살았던 역사적 사실에 있다.

위 인용문에서 주목할 점은 (b)에서 cal(갈)이 목적어로서 동사 앞에 사용되어, 우리말의 통사구조 원칙인 ‘목적어+동사’의 어순에 일치한다는 점과 chihua(지와)가 동사로서 ‘짓다’를 뜻한다는 것이다. 서술형종결어미 ‘-다’는 우리말에서도 19세기 이후에 정착되었다.

‘다지왈테백(tlachihualtepec)’에서, 첫 음절 ‘다(tla)’는 원래 ‘다(ta)’였으나, 아스텍제국 정복 시기에 시작된 ‘언어 혼란’으로 인하여 자음 L이 첨가된 형태이다. 따라서 원주민의 원래 말은 ‘다(ta)’이다²⁶⁾.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지왈테백(tlachihualtepec)’은 위 인용문에서 이미 ‘다 지은 산’이라고 해석해 놓았지만, 발음에 따라서 해석한 우리말로서도 ‘다 지은 태백’ 즉 ‘다 지은 산’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피라밋 명칭은 다음과 같은 우리말 형태소 구조를 가진다.

형태소 구조: **tlachihualtepec = 다(tla)+지왈(chihual)+태백(tepec)**

- a) 다(tla): 다 (우리말에서 대명사나 부사로 사용됨. 여기서는 부사로 사용됨)
- b) 지왈(chihual): 지은, ‘짓+은’으로 구성된 말이지만, 받침 소리 ‘ㅅ’은 탈락하고 ‘은’은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표기되지 못하여 ‘왈(hual)’로 대체 표기된 듯하다.
- c) 태백(tepec): 태백(=산)
- d) Tlachihualtepec (다 지왈 태백)의 의미: 다 지은 산. (전체적으로 우리말 명사구의 어순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²⁷⁾

Tlachihualtepec(다 지왈 태백)은 멕시코에서 가장 큰 피라밋의 명칭이다. 이 말의 뜻은 ‘손으로 지은 산’이라고, 위에서 본 가브리엘 데 로하스(Gabriel de Rojas)의 보고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미스테리 중 또 한 가지를 밝혔다. 즉 고구려-부여에서 지은 만주의 그 많은 피라밋을 우리 선조들이 ‘태백’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다. 우리 선조들은 조상들의 무덤인 적석총(피라밋)을 지어두고, ‘산’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나주 복암리의 흙무덤도 피라밋, 즉 태백이며, 마립간 시대에 건축된 경주의

26) 나와들어에서 ‘TL=T’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손성태(2011), 「멕시코에 나타난 우리민족의 언어-나와들어의 생활용어를 중심으로」, 『언어학』, 제19집, pp. 195~196./ Wolgemuth, Carl(1981), 『Gramática Náhuatl』, p. XV.

27) 유럽인들은 나와들어를 받아 적을 때, 단어의 경계를 알지 못하여, 원주민들의 말은 교착어로서 모든 단어가 한 단어처럼 붙어버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초기 스페인 선교사들은 모든 어휘를 붙여서 기록하였다. 참고로 15세기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한글로 기록된 문헌들도 띄어쓰기가 없었고, 20초세기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간된 소위 ‘이야기 책’들도 띄어쓰기가 없었다

신라시대 거대한 왕릉들도 모두 태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즉 우리 선조들은 무덤을 ‘산’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적석총의 계단식 형태와 경주 고분의 흙으로 된 비계단식 형태의 차이는 결국 돌과 흙이라는 재료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멕시코에서도 흙으로 된 피라밋은 비계단식이다. 참고로 삼국시대에 축조된 나주 복암리 무덤은 흙으로 지어진 피라밋식 무덤이다.

〈나주 복암리 고분〉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무덤의 전체적 형태는 만주의 피라밋 모양이지만, 재료가 흙이라서 비계단식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무덤은 만주의 피라밋과 경주의 왕릉의 중간적 형태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하여, 나와들어의 *tepec*(태백)이 우리민족 역사에 기록된, 뜻을 잃어버린 ‘태백(太白)’이라는 것과, 그 진정한 의미는 ‘산’이라는 것과, 이 어휘는 선조들이 사용하던 민족 고유의 어휘였다는 것을 알았다. 또 우리 선조들이 건축했던 그 많은 만주의 피라밋도 ‘태백’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알았고,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의 무덤을 ‘산’처럼 지으려 했던 것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만주의 피라밋이 계단식이고 나주 복암리의 고분은 단순한 경사면으로 축조된 이유가 돌과 흙이라는 재료의 차이 때문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아스테카인들이 ‘아스팡(아스달)’을 떠나서 멕시코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기록해 둔 고문헌에는 ‘흙으로 피라밋(태백)을 쌓았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 멕시코 각지에도 나주 복암리 고분처럼 계단이 없는 형태의 흙 피라밋도 여러 개가 있다.

위 인용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할 것이 있다. 인용문에 따르면 멕시코 출틀라(Cholula)의 지명 유래가 톨태가(Tolteca)에서 도망쳐 왔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면서, ‘출로안니(Choloani)’를 ‘도망자(huidor)’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28) 신라시대, 특히 마립간 시대인 4세기말에서 6세기 초 사이에 건축된 왕릉들은 모두 거대한 고분, 즉 ‘돌무지덧널무덤’이고, 금관들이 출토되었으며, 왕들을 비롯한 귀족들에게는 동북부 만주 지역에서 사용되던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또 경주에는 유목민이 사용하던 동북이 출토되었고, 부여의 마가, 우가, 구가, 저가의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 ‘가’가 경상도 방언에 남아 있다. 소위 ‘가가가’라는 경상도 방언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경상도에는 부여-고구려의 영향으로 짐작되는 요소들이 많다. 바로 사학계에서 말하는 소위 ‘기마민족설’과 관련되는 듯하다.

2.5. 출룰라(Cholula)

출룰라(Cholula)는 오늘날 멕시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동남쪽으로 95km 거리에 있는 도시이며, 푸에블라주에 있다. 이 도시는 위의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돌태가(Tolteca)문명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도망쳐 내려온 사람들이 건설한 문명이었다. 돌태가문명은 멕시코 중부 지역에서 태오티와칸(Teotihuacan)문명이 8세기에 무너지자, 일부 사람들이 멕시코시티에서 북쪽으로 70km 지점에 있는 툴라(Tula)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여 세운 문명이었다. 9세기부터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정착하면서 돌태가문명이 시작되자, 또 한 큰 씨족집단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합류했다. 기존의 집단과 새로운 집단은 처음에는 서로 사이좋게 살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두 집단 간에는 주도권 경쟁이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큰 전쟁이 여러차례 벌어졌다. 이 전쟁에서 패한 집단은 돌태가문명을 처음 시작했던 집단이었다. 패한 집단이 툴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림으로써, 돌태가문명은 12세기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떠난 사람들은 작은 씨족집단별로 쪼개어져 각지로 흩어졌는데, 그 중의 일부 집단이 출룰라에 정착했던 것이다. 출룰라로 도망쳐 온 이 사람들의 모습은, 손성태(2010)에서 밝혔듯이, 남자들은 상투를 하고 검은 갓 모자를 썼으며,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 그들은 노래를 매우 좋아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시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것은 삼국지위지동이전에 기록된 부여의 풍습과 같다. 또 식습관으로 개고기를 먹었고, 봄에는 풀을 뜯어 먹었는데, 우리민족의 나물 뜯어 먹는 풍습과 일치한다.

420년 전 기록된 위 인용문에서, 출룰라(Cholula)의 지명의 유래가 기록되어 있다. 툴라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을 출로안이(choloani)라고 했고, 이 말은 ‘도망치다’를 뜻하는 출로안(choloan)에서 비롯된 말이며, 여기서 이 도시의 지명이 유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손성태(2011)에서 우리말과 멕시코 나와들어의 음운대응에서 밝혔듯이, 나와들어는 스페인어 표기법의 영향으로, 원래 존재했던 평음, 경음, 격음의 구별이 중화되어 모두 경음으로 표기되었다고 했다. 또 우리말과 멕시코 나와들어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모음 ‘i/u’의 교체 사용이다(예: 삼촌/삼춘, 사돈/사둔; 줄줄새다/줄줄새다.등). 나와들어에서는 ‘i/u’가 교체 사용된다(Colhuacan골와칸/Culhuacan골와칸, Tenoch테노치/Tenuch테누치 등).

이런 음운현상을 고려하면, 출로안이(choloani)는 곧 ‘출로안이’로도 발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도망친 사람’을 뜻한다고 했으므로, 마지막 음절 ‘이(i)’가 사람을 뜻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말의 형태소 구조는 다음과 같다.

Choloani(출로안이)=Chuloani(줄로안이) → chuloan(줄로안)+i(이)

이 말을 우리말 ‘줄행랑치다’와 비교해 보자. 우리말에서 ‘줄행랑치다’는 ‘줄행랑 놓다’라

고도 한다. 이것은 '도망'의 뜻이 '치다'와 '놓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줄행랑'에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줄행랑'과 '줄로안(chuloan)'이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와들어; chuloan(줄로안) : 도망치다
 우리말: 줄행랑 : 도망치다

여기서, 우리말 '줄행랑'의 '행'이 한자어 '행(行)'이라면, 즉 원래의 우리말 속에 이 한자어가 중간에 첨가된 것이라면, 원래의 우리말에서 '도망치다'는 '줄랑'이 된다. 4세기경 우리 민족은 중국으로부터 한자어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행(行)'이 순 우리말 '줄랑' 속에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추된 우리말 '줄랑'과 나와들어 '줄로안'이 대응된다.

줄랑 = 줄로안(chuloan)

그리고 나와들어 줄로안(chuloan)의 발음을 축약시켜 발음하면 '줄랑'이 된다. 우리말 '줄랑'과 같아진다.

이러한 필자의 설명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한자어가 순 우리말에 위와 같이 어휘의 중간에 첨가되어 합성어가 된 증거가 있는가'일 것이다. 국어학자 서정범은 '우두머리'의 '두'는 한자어 '두(頭)일 것이라고 설명했다²⁹⁾.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에는 '우두머리'를 '우머리(umuri)'라고 기록하고 있다³⁰⁾.

3. 결론

필자는 본 연구에서 멕시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국명(國名)과 지명(地名) 몇 개를 우리나라와 멕시코의 역사적 관점과 두 나라의 언어를 바탕으로,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루었다. 먼저 멕시코의 국명의 원래 발음은 맥이곳(México)이고, 그 뜻은 '맥이족이 사는 곳'을 뜻했으며, 오늘날 '멕이고'로 발음하는 이유는, 받침소리가 없는 스페인어의 특징 때문이라는 것과, '멕(Mé)'에 악센트가 주어진 이유는 우리말 '맥'의 받침소리로 인하여 강하게 들리는 음성학적 특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맥이(Méxi)는 바로 고조선계의 우리 민족 맥(貊)/맥이(貊耳)와 일치한다는 것을 밝혔다.

멕시코 원주민의 원 고향인 아스땅(Aztlán)이 우리민족 고대사에 나오는 고조선의 아사

29) 서정범(2003), 『국어어원사전』, 보고서

30) Langacker, Ronald W.(1984): Studies in Uto - Aztecan grammar Vol.4 Published in the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an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ton, p. 25.

달(阿斯達)이라는 것을 역시 두 나라의 고대 기록을 비교 검토하고, 또 언어학적 비교로서 밝혔다. 특히 아스땅이 ‘하얀 땅’을 뜻한다는 멕시코 기록을 참조하여, 아사달이 ‘하얀 땅’을 뜻하며, 우리의 고대 기록에는 그 뜻을 바로 옆에 한자어로 백악산(白岳山)이라고 붙여 놓았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민족 고대사의 논쟁거리로 남아있던, 단군신화의 태백(太白)이 바로 ‘산’을 뜻한다는 사실도 밝혔고, 3세기 이전까지 우리 선조들이 만주 일대에 축조하였던 수많은 피라미드 태백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멕시코 출몰라에 관한 고대 기록을 바탕으로 밝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멕시코 푸에블라주의 출룰라(cholula)의 지명이 ‘도망치다’라는 뜻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말의 ‘줄행랑’과의 연관성을 검토했다.

본 연구에서 다룬 국명과 지명은 멕시코와 우리나라의 본체(本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나라의 시원(始原)과 관련된 어휘들이다. 이 어휘들이 두 나라 간에 일치한다는 사실은 두 민족이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역사적 지명(地名)이 증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명을 다룬 이 연구결과와 풍속과 같은 필자의 다른 연구를 비교해 보면, 멕시코의 원주민들이 우리민족의 후예임라는 사실을 주장함에 있어서, 분야가 다른 연구도 서로 모순됨이 없이 이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장길운. (1990). *고대사의 비교언어학적 연구*, 서울: 새문사.
- 김방한. (1980). 원시 한반도어. *한국문화*, 1, 1-25.
- 박영규. (2009). *한권으로 읽는 고구려 왕조실록*. 서울: 웅진출판사.
- 서정범. (2000). *국어어원사전*. 서울: 보고사.
- 성희제. (2006). 지명어의 구성. *지명학 연구*, 12, 129-156.
- 손성태. (2008). 민족의 이동 -아메리카로 건너 간 우리민족의 언어적 증거. 시베리아 고아시아인종의 후예, 한민족의 파장(아메리카 대륙까지). 2008년 6월 9일. *배재대 한국시베리카센터 2008년 하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pp. 18-36).
- 손성태. (2009). Qué relación hay entre los aztecas y los coreanos?, la comparación de las costumbres de la vida cotidiana y de la religión, y algunas pruebas arqueológicas. *한국스페인어문학회 2009년 겨울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pp. 185-199).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 손성태. (2009a). 아스테카인의 탄생, 육아 및 장례 문화, *비교민속학*, 39, 183-223.

- 손성태. (2009b). 아스텍의 역사 제도 풍습 및 지명에 나타나는 우리말 연구. *스페인·라틴 아메리카 연구*, 2, 1-54.
- 손성태. (2010a). 아스텍 제국에 나타난 우리민족의 풍습. *비교민속학*, 43, 299-347.
- 손성태. (2010b). 아스텍의 일상생활, 지명, 제도 속의 우리말 연구(1). *2010년 한국스페인어 문학회 겨울학회 발표 자료집* (pp. 247-258).
- 손성태. (2011). 멕시코에 나타난 우리민족의 언어, *언어학*, 19(3), 185-211.
- 李珍華, 周長楫. (1993).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 진수. (연도미상). 삼국지위지동이전, *삼국지*. 중국.
(<http://www.tl5000.com/24shi/sgz/index.html>)
- 최명욱. (2004). *국어 음운론*. 서울: 태학사.
- 저자미상. (1984). *Codex Mendoza*. London, Published by Regent Books, Productions Liber, S.A., Kurt Ross가 연구하고 주석을 단 본, [16세기 전반기 문헌].
- 저자미상. (2002). *El Códice de Cholula*, Francisco González-Hermosillo A. & Luis Reyes García가 연구하고 주석을 단 본, Instituto Nacional de Antropología e Historia, Grupo Editorial Miguel Angel Porrúa. [[17세기 전반기 문헌].
- Anderson, A. (1992). *Rules of the Aztec language*. Salt Lake City: University of Utah Press.
- Benson, E. (1984). *Ritual human sacrifice in Mesoamerica: A conference at Dumbarton Oaks, October 13th and 14th*. Washington, DC: Dumbarton Oaks Press.
- Clavijero, X. F. (1974). *Reglas de la lengua mexicana con un vocabulario*. México. UNAM(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impreso. [18세기 문헌].
- Dolores, R. (1984). *Códice de Cuauhtemoc, Biografía*. México. Editorial Orion.
- De Rojas, G. (1979). *Las relaciones de Cholula, Culhuacan, Teotzacualco y Ameltepecque*, [1581년 문헌]. México, Instituto fr Investigacions Antropológicas.
- Langacker, R. W. (1984). *Studies in Uto - Aztecan grammar*, 4. Arlington, TX: The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and the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손성태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전화: (042) 520-5648, 010-9230-2367
이메일: stson@pcu.ac.kr

Received on June 28, 201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5, 2013

Accepted on September 10, 2013